

승소하고도 합의금·법인세 714억까지 내준 광주시

'의혹 투성이' 민선 6기 광주시-맥쿼리 제2순환도로 변경 협약

<4> 협상 전환 배경 불투명...초라한 결과

1·2심 승소 후 혈세 절감 최소 3479억원 기대됐지만

민선 6기 소송→협상 방향 급선회...1014억까지 줄어

민선 6기 광주시가 1심과 2심에서 승소·일부 승소한 맥쿼리를 상대로 협상에 나서면서 맥쿼리 논리에 휘둘려 제대로 협상조차 해보지 못하고 369억원에 이르는 합의금까지 내놓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게다가 시는 맥쿼리 자회사인 (주)광주순환도로투자의 법인세 345억원(추정지)까지 내주기로 했다.

이를 감안하면 재정절감 규모는 당초 광주시가 발표한 1014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백억원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협약 변경 뒤 첫 해인 지난해 광주시의 절감액은 4억6000만원에 불과했으며, 남은 운영기간이 11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500억원이 채 되지 못한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당초 최소 3479억원이었던 재정 절감 규모는 맥쿼리와 협상을 거치면서 표면상으

로 1014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사실상 맥쿼리에 의한 협상 구도에 광주시가 높아졌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협상 변경으로 인한 통행요금 인하 등 시민들에게 돌아간 혜택도 없었다.

◇맥쿼리-맥쿼리 측 전문가 시장 측근의 이권에 돌아온 변경 협상-민선 6기에서 맥쿼리와 협상에 나서며 내건 이유는 ▲대법원 승소, 즉 시의 감독명령을 통해 자본 구조를 원상으로 되돌리더라도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는 점 ▲유사한 소송에서 다른 지자체가 패소하는 등 불리한 여건이라는 점 ▲기간사업자 측이 소송 전략으로 나오면 분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 등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민선 6기의 협약 변경 협상 착수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선 5기 강운태 시장은 "맥쿼리

■맥쿼리 협약 변경 주요 일정

2011년	광주시 자본구조원상 회복 명령 및 맥쿼리 불복 소송 제기
2013년 2월	감독명령 취소 소송 광주시 1심 승소
2014년 1월	광주시 2심 자본구조원상 회복 승소(자본 변경에 따른 이익을 광주시로 귀속시키는 부분에 대해 재판부 불인정) 광주시-맥쿼리 대법원 상고
2014년 5월	재정 지원 중지 및 관리운영권 회수 추진
2014년 7월	민선 6기 출범
2014년 12월	맥쿼리 임원, 자본구조 변경 전문가를 유장현 광주시장 측근에게 소개(최근 민사소송에서 측근은 상호 역할을 분담했다고 진술했음)
2015년 9월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로 재정경감단 구성 및 소송-협상 전략 전환
2015년 10월~12월	맥쿼리 소개 자본구조 변경 전문가 배석 재정경감단 5차례 회의
2016년 6월	광주시, 맥쿼리 자회사 (주)광주순환도로투자에 369억 합의금, 815억 미지급금 전담 협상 타결(광주시 1014억원 절감 밝혔으나 불명확) 최종 변경협약 체결(운영비 문제가 부상하면서 시설관리 및 요금징수 용역을 윤 시장 측근이 속한 단체가 설립한 업체가 맡기로 함), 광주시 감독명령 취소 및 대법원 상고 취하
2016년 12월	윤 시장 측근 소속 단체 설립 업체, 맥쿼리 자회사 (주)광주순환도로투자 상대 '통합관리선정업체 지위 확인의 소' 제기(맥쿼리가 약속한대로 시설관리 및 요금 징수 용역을 주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임)
2018년 3월	광주지방경찰청 광주 제2순환도로 변경 협상 과정에서 윤 시장 측근, 담당공무원 등의 금품수수 및 이권 거래 수사 결과 발표
2018년 8월	
2018년 12월	현재 검찰 수사 및 민사소송 진행중

가) 자본구조를 회복하기 위해 3100억원

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그렇게 될 경우 사업중지를 처분하

시가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수정산터널, 일산대교 등 다른 지자체의 1심, 2심 패소를 보고 불리한 여건이라고 판단한 근거도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제2순환도로 1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최소한의 통행 요금 인하 등의 혜택도 없었다. (주)광주순환도로투자(맥쿼리)가 재정지원금 지급 중지처분 소송을 제기해 2015년 8월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하면서 미지급금에 대한 연체이자에 부담이 가중되면서 협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민선 5기에서 관리운영권 매입, 최소영수입보장 폐지 등을 위해 법적 공방을 벌이며 압박했지만, 민선 6기 들어서 소송-협상 병행 전략으로 기류가 바뀌고, 2016년 1월 (주)광주순환도로투자가 사업시행조건 조정계획을 제출하면서 완전히 협상 모드에 들어갔다. 2014년 12월 맥쿼리 임원이 자본구조 변경 전문가를 유장현 광주시장 캠프 관계자에게 소개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민선 6기 초기부터 협상 움직임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민선 5기 1심 승소, 2심 일부 승소 등 강한 압박-민선 6기 들어 급선회=2013년 2월 광주시는 1심에서 승소하면서 10~20%대의 고금리 차입금을 통해 이익을 취

하는 (주)광주순환도로투자의 자본구조원상 회복과 함께 자본구조의 변경으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챙긴 맥쿼리 수익 중 1401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어 2014년 1월 항소심 재판부가 광주시 일부 승소 판결을 하자 민선 5기는 보도자료를 내고 "앞으로 별도의 명확한 행정처분을 내려 부당이득을 환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2014년 5월 14일에는 재정 지원을 중지하고, 대법원 승소 시에는 관리운영권을 되돌려받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기도 했다.

소송 승소에 따른 시민 혈세 절감 효과는 최초 최소 3479억원, 최대 1조원이었으나 이후 계속 줄어갔다. 민선 6기 들어 2015년 12월 2798억원, 2016년 2월 2033억원, 2016년 4월 1215억~2000억원, 2016년 1031억~2010억원에서 최종적으로 1014억원으로 결정됐다.

시 관계자는 "민선 5기에서 지나치게 규모를 키운 측면도 있으며, 협상이 도중에 결렬될 위기를 겪으면서 현재의 규모로 결정된 것"이라며 "물가상승률을 1.31%에 맞춰 절감 규모를 최대한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정은 연내 답방 여부 진척 없다"

靑 "재촉할 의사 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 여부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청와대가 9일 밝혔다.

운영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 위원장의 답방과 관련해 "지금까지 진척된 사항이 없고 발표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선반대 방안 가능성도 아직 없다고 밝혔다. 김의경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서울 정상 회담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해왔다"며 "현재로서는 확정된 사실이 없으며, 서울 방문은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돼야 하는 만큼 우리로서는 서두르거나 재촉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지

금까지 북한으로부터 연락 온 게 없다"고 재확인하고 "북측에 충분한 메시지는 간 상황이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지만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연내 또는 내년 초 답방 가능성을 여전히 모두 열어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내 간담회에서 연말·연초 둘 다 열어놨는데 우리는 준비를 해놔야 한다"며 "연제가 될지 모르기에 준비하는 차원이지만 시점이 정해져 거기 맞춰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만약의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하겠지만 전혀 예측이 안 되기에 구체적인 준비를 못하고 있다"며 만약 갑자기 온다고 결정되면 프레스센터 없이 처리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호텔(예약)도 한계가 있는 것이



9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백두청송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릴레이 연설을 하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 환영'이 써진 피켓을 흔들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지도 결정이 되면 어떻게 준비할지 난감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와 관련해 이번 달 중순에서부터 20일을 전후한 하순 초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청와대는 구체적인 날짜를 제외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런 관측에 "아는 바 없다"고 부인한 뒤 "북측에서 오겠다는 의사결정이 있어야 그 뒤에 구체적인 날짜를 얘기하지 않겠느냐"며 "의사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날짜 협의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북한으로부터 답변을 받으면

일을 정도의 준비 소요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하루 전이라도 방남 직접 발표할 수도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며 "어떻게 발표가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체계가 숨기다가 갑자기 오고 이게 되겠느냐"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결정될 경우 북측의 사전 답사 여부에 그는 "4·27 회담 때도 며칠 전부터 내려와 남측 평화의집에서 다 보고 가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형 일자리' 1면서 계속

이용섭 광주시장은 9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차 투자협상팀의 단장을 맡아 조속히 협상을 재개하고 협약을 체결 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현대차와 지역노동계의 조정-합의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협상 당사자 간 신뢰가 깨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인만큼 협상팀의 구성과 기능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오후 빛고을체육관(옛 염주체육관)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 성공 염원 시민결기대회를 갖고 시민 염원 담은 서명도 받아 현대차에 전달하기로 했다.

현대차가 이 같은 시의 움직임에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다만 현대차의 입장문 발표 뒤에도 실무선에서의 연락은 계속됐다는 점에서 협상이 완전히 물 건너 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무너진 신뢰 회복'이 협상 재개의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보고 있다. 이 시장은 "노사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으로 인해 투자협약체결이 무산됐지만, 이는 큰 문제가 아니다"며 "신뢰만 복원된다면 하루도 안 지나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협상 개시 또는 종료 시점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는 등 조심스러운 입장이 보였다.

하지만 현대차가 이례적인 입장발표문을 내고 광주시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지역노동계 역시 "더 이상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광주시가 '노사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 관련 양측을 만족시킬만한 중재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광주시가 지난 6월 1일 투자협약을 체결한 현대차와 작성한 협약서 내용에 지역노동계가 반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탈하고, 11월 13일 지역노동계와 작성한 투자유치추진단 합의문으로 인해 현대차가 협상을 거부하는 등 어느 한 편의 입장을 대변할 경우 나타나는 부작용을 경험한만큼 이번에는 새로운 대안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현대차의 투자 유치에 방점을 찍고, 지역노동계는 합작법인 설립, 적정임금 및 근로시간 등과 관련한 용역 발주 등의 과정에서 설득하는 방향도 검토해볼만 하다.

이에 따라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 합작법인의 미래 지속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고 광주시가 자체 방안을 마련해 양측 모두를 설득하고 신속하게 재협상을 마무리, 1~2주 내에 투자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말을 넘길 경우 자칫 협상이 장기화되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부, 정치권, 국민의 관심이 사그라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매비법전수
 • NPL과 특수물건만 교육
 • 입장비용 교육비 1200만원
 • 배우면서 투자가능!
 (주)오천경매.010-3605-5000

토지
 ※입야/단독섬/지분환영※
 바로합니다.010-6834-740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은 1130㎡ 1억2천
 • 영암군 신북면 월지리 김나무밭 746㎡ 전원생활용 4천만원
 •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1728㎡ 전원주택·주말농장 적합 1억7천
 • 완도 약산면 바다인접 주택 대지 607㎡ 주택 70㎡ 9200만원
 • 곡성 삼기면 정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600만원
투자·매도·교환
 • 남평읍 노동리 땅 3468㎡ 별장·사찰 등 적합 8억7천
 • 나주시 산포면 신제리 땅 3044㎡ 도로인접 투자에 양호 3억4천
 • 남평읍 상곡리 땅 6608㎡ 주택인접 전원생활 최적 1억5천
 •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4861㎡ 창고·가든·매장 등 적합 6억
 •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대지 641㎡ 사찰·빌라·다세대 적합 1억5백
 • 무안 해제면 소재지 상업지 1036㎡ 은행 2억4천 매도 1억
 • 광산구 송정동 상업지 311㎡ 주택인접 은행 9600 매도 3억
 • 장성 삼계면 주산리 상업지 432㎡ 장기투자에 적합 5200만원
 • 무안 정계 목포대학부근 주거지 답 4413㎡ 은행 2억4천 매도 7천
 • 소태동 대지 261㎡ 주택 78㎡ 조용한 생활 적합 1억8천
 • 광산구 대신동 집종지 등 1554㎡ 창고 등 다용도적합 3억7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점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육적합 7억5천
상가건물
 • 목포 옥암동 여관 대지 439㎡ 건평 989㎡ 객실 27 은행 4억 매도 6천만원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 점 토지 155㎡ 건물 4층 263㎡4억천
 • 동구 서석동 대지 404㎡ 5층건물 919㎡ 9천에 월300수익 10억2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 농성초부근 2차선점 상가주택 땅 172㎡ 건평 279㎡ 4억5천
특급물건
 • 팬션 순천만 대대동 땅 332㎡ 루프 8개와 관리실 은행 3억 영업장됨 3억천
 • 아파트 부지 담양 고서면 63530㎡ 평당 70(130억)
 • 완도를 새마을 땅 959㎡ 45실 2393㎡ 은행 17억 감정기이하 23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돈되는 NPL 투자비법과 경매
10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 첫 공개 강의 일시 ●
 조선대 : 12월 21일(금) 주간 3시, 야간 7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나요?
 퇴직 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채테크!!
 소액투자도 고수익을 보.
 임대 공장 소유주는 자본없이도
 자기소유공장 만들어 드림!
2018년도 동계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8년 11월 20일(화) ~ 2018년 12월 28일(금)
 • 교육기간 : 2018년 12월 21일(금) ~ 2019년 2월 15일(금)
 매주 금요일 주간 15:00~17:00 야간 19:00~21:00
 • 수 강 료 : 12만원(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접수상담지도교수 H. 010-9416-1200 T. 062)230-77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광주광역시 인구조번복지지원회 광주전남지회
함께하면 돈돈독아 성공비법
직장은치문화 제로법
 직장명 & 대외명 호칭은 대신 매달하는 직장문화 전환기!
슈퍼망 방지법
 유익을 도모하는 이해회사! 망망 하는 이해회사!
육아후수 주의법
 시문 육아에 후수 대신! 일몰지 막아낸 만년내 내다!
육아대대 지지법
 이해를 넘어! 유익! 장인, 격려, 응원하기!
돈돈독아 동참법
 풍요의 육아! 육아! 육아! 육아! 육아! 육아! 육아! 육아! 육아! 육아! 육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조번복지지원회 개신
 광주광역시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가 함께 합니다